

지역 소식통

김제시,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

김제시는 저소득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020년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본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자활능력이 부족한 관내 저소득층의 노후된 주택을 개보수하여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한 보금자리와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김제시는 2010년부터 38억여원의 예산으로 1,180여 가구에 도배, 장판, 창호, 주방, 욕실, 화장실, 벽체, 지붕개량 등 개보수가 시급한 노후 주택을 개보수해오고 있으며, 올해는 2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60여가구에 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재전 건축과장은 "본 사업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보다 나은 생활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명처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시행

완주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를 감면한다.

완주군은 코로나19 대책지원으로 농기계 임대 희망농업인에게 농기계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감면은 6월부터 시행해 오는 6월 30일까지 진행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올해 어촌특화지원사업 선정

'김제시 내수면 공동체'... 올해 '어촌특화지원사업' 대상지 어촌 특화사업 발굴·내수면 분야 6차산업 추진 계기 마련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2020년도 어촌특화지원사업'에 김제시 내수면 사업 분야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어촌마을 특화사업 발굴 및 내수면 분야 6차 산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어촌특화지원사업은 어촌특화산업화를 희망하고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연수, 창업 및 경영 컨설팅, 특화상품 판로 확보 등 공동체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힘든 부분을 단계적 적용 시스템을 도입하여,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어촌특화지원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다.

어촌특화지원사업의 주요 목적은 주민 스스로 현안문제 및 갈등상황 등을 도출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에 따라 역량강화교육, 선진지견학 등을 통하여

자생적인 능력 배양 및 공동체 협력강화, 더 나아가 마을의 특화사업 등을 발굴하여 최종적으로 6차 산업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에 최하호 새만금해양과장은 유·무형 자원을 활용하여 어촌마을이 자체 소득사업, 정주여건개선, 갈등관리 등 주민 스스로 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한편, 마을 특화사업 발굴 시, 국가 예산 확보 및 행정적인 지원 등을 통하여 마을 특화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6차 산업을 이루도록 견인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양식업계 뿐만 아니라 수산업 전반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2020년도



전북어촌특화지원사업'에 김제시 내수면 공동체가 선정된 것은 수산인에게 큰 힘을 주는 매우 기쁜 소식"이라며 "앞으로 지역의 수산들과 우수한 자연경관 등의 관광산업을 연계한 고소득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딸기 육묘 관리가 딸기 농사 성패 좌우한다"

김제시농업기술센터, 성공적인 딸기 농사... 초기 육묘 관리 중요

김제시농업기술센터(소장 신미란)는 성공적인 딸기 농사를 위해서는 육묘 환경 관리와 초기 철저한 병해충 방제가 필요하며 재배 농가의 주의를 당부했다.

김제시 딸기재배 면적은 70농가에 25ha로 설정과 금실 두가지 품종을 재배하고 있으며, 재배 농가중 90%는 신향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딸기 품종 '선향'은 추성재배 품종으로 재배를 최소 70일 이상 키워야 한다.

특히 충실한 자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미묘 정식을 3월 중하순이 적당하며 늦어도 4월 초순까지 정식을

마쳐야 한다. 딸기 어미묘의 정식시기가 늦어지면 자묘의 발생 시기도 늦어져서 원하는 자묘의 수를 확보하기 어렵다.

또한 어미묘를 정식하기 전에 하우스 내부소독이 반드시 필요한데, 바다에 깔아둔 덮개, 배수로 등에 소독제를 충분히 뿌린 후 하우스를 밀폐해야 효과적이다. 또한 정식용 화분은 고압세척으로 이물질을 씻어낸 후 훈증소독을 해야 한다.

딸기 육묘 중 주로 발생하는 병으로는 탄저병, 시들음병, 역병 등이 있으며 이를 육묘 초기부터 철저하게 방제를 하지 않으면 정식이후까지 피해를 끼치므로 방제에 힘써야 하며, 뿌리에 해를 끼치는 작은뿌리파리, 뿌리썩이선충, 뿌리혹선충 등의 해충이 뿌



김제시농업기술센터는 성공적인 딸기 농사를 위해 육묘 환경 관리와 초기 철저한 병해충 방제를 당부했다.

리에 상처를 내고 이 상처를 통해 병의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해충방제에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김제=곽노태기자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긴급 맞춤형 키트 지원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강정완)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후원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장애인의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지원으로 지난 3일 맞춤형 키트를 지원했다.

맞춤형 키트는 필요한 물품을 개인별 조사를 하여 위생용품 및 간편 식품을 1인당 10가지 품목으로 구성하였고 총 14가구에 지원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을 주었다.

물품 지원 시 직원들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문 앞에 물품을 놓고 안전거리에서 물품수령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강정완 관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저소득계층 장애인 가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장기화로 식사 및 영양개선과 우울방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복지관 휴관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들이 있는지 살피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제시장애인종합복지관은 휴관 기간 동안 긴급지원뿐만 아니라 복지관 소독과 방역, 전화를 통한 안부인사로 정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으며, 위생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상하수도과는 새 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시설물 대상으로 대청소와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수돗물 깨끗하게 공급합니다"

김제시 상하수도과, 관내 배수지 대청소와 소독 실시

김제시 상하수도과는 새 봄을 맞아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상수도시설물을 대상으로 대청소와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배수지 청소 및 소독은 김제시 관내 김제배수지를 비롯하여 8개 배수지이며, 4월 7일 시작하여 4월 29일까지 완료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배수지 청소 및 소독은 관련법에 따라, 연 2회 실시해야하는 법정 사항으로 전문업체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으며, 저수조 내부 물때와

바닥 침전물 제거, 미생물 번식 방지를 위한 소독 및 세정 등을 실시한다.

또한, 배수지 주변청소, 잠금장치 확인, 각종 밸브 작동 확인 등을 실시하여 수도시설물 유지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배수지 청소 기간 중 단수로 인한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일정을 정해 순차적으로 1곳씩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위생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군정소식지 '으뜸완주' 제168호 발행

군민 참여가 강화된 완주군의 소식지 '으뜸완주' 제168호가 3월 발행되었다.

분기별 1회 발행되는 이번 2020년 군정소식지는 군민 참여를 더욱 늘려, 작년과 다른 모습으로 새롭게 구성되었다.

표지는 '가족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콘셉트로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표지 모델을 희망하시는 군민들을 게재하였다. 한 컷 완주(목차)는 우리 마을 문화재를 소개하며 마을 주민들과의 인터뷰를 담았으며, 기획 특집에는 코로나19에 대한 예방 행동 요령과 극복을 위한 민간의 여러 단체들의 훈훈한 봉사 사례가 담겨있다.

또한, 완주군에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 인생 2막을 시작하는 주민들의 사례들도 소개되었다. '모바일 완주'에서는 완주지역자활센터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해와 달' 카페가 소개되었으며, '트레닝스 완주'에는 완주군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책을 쓰는 작가로 거듭난 진달래학교 박명선님, 엄마의 방학 대표 김지영 님에 대해 소개되었다. /완주=이종복 기자

특히, 이번 호에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완주군의 급속 문명에 대해 알기 쉽게 소개하였고 완주군의 명소를 달리는 코너에서는 군청 직원들이 모델로 등장하여 행정에서 발행하는 딱딱한 정책 소식지라는 편견을 깨고 주민들이 재미있게 읽을 수 있도록 콘텐트의 다양화를 시도하였다.

그 밖에도, 읍면별 주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완주로', 군 정책을 재미있는 만화로 표현한 '웹툰 완주', 의정활동을 담은 '의회소식', 주민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압축하여 소개한 '으뜸알림판'이 있으며, '으뜸문화관', '청춘사진관', '아지트 공유 프로젝트', '마음의 소리', '블링그림찾기' 등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코너들을 다수 기획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냈다.

분기별로 2만6,500부가 발행되는 완주군정소식지 '으뜸완주'는 군민, 출향인사, 각급 기관 및 단체에 발송된다.

정기 구독을 희망하는 경우 완주군 청 정책홍보팀 ☎ 063-290-2139로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